

## 10년간 3단계 마스터플랜 따라 제주성 복원

제주시,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바탕으로

데스크승인 2014.08.14 김현종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에 걸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제주성 복원·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3단계로 구성된 이 마스터플랜의 총 사업비는 528억여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토지 매입에 약 248억원, 발굴조사에는 약 65억원, 정비·복원엔 약 2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1단계 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로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이각 및 일각 주변에 대한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와 함께 제이각과 공신정, 중인문(간성 출입문), 복수구(홍예교), 결승정 등에 대한 복원사업이 이뤄진다.

공신정은 1653년(효종 4)에 건립(1832년 이설)돼 관리들이 손님 접대소로 사용했던 정자이고, 결승정은 1592년(선조 25)에 목사 이경록이 왜군 침입에 대비해 무운을 비는 의미에서 성 위에 세운 정자다.

중인문은 1780년(정조 4) 목사 김영수가 산지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축조한 간성(間城) 출입을 위해 세운 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스터플랜 2단계는 제주성 남문 동·서측과 오현단, 운주당 주변에 대한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 남문 동·서쪽 성벽과 남문, 웅성에 대한 정비·복원을 진행한다. 운주당은 1568년(선조 1) 목사 곽홀이 창건한 장대로, 장수가 병사들을 훈련시키던 장소다.

3단계의 경우 2021년부터 2023까지 남수각 동측 성벽과 서문, 동문 주변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며 운주당, 남수각 동쪽 성벽, 서문, 웅성에 대한 정비·복원을 병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성 거점인 성곽 치성의 누각에 대한 복원을 우선 추진한 후 동치성과 제주성 출입문인 남문·서문·동문 등을 순차적으로 되살릴 계획”이라며 “탐라문화광장과 김만덕기념관 등과 연계한 제주성 옛길을 복원해 답사 프로그램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mailto: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